

종교교육학연구 제14권. pp.7~2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한국의 전통상례와 죽음관 연구(2)

강 성 경

(원광보건대학 도서관)

《요약》

전통신앙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한 사령제의 목적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인간 중심주의의 발현이었다. 왜냐하면 영혼이 현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므로 망자는 이승에서의 한을 풀고 어서 저승으로 가기를 원하는 의식이었다.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죽음관 속에서 그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구약성서에서 의인(義人)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몸을 죽여서라도 인(仁)을 이루고자 하였던 유교적 선비정신과 일치하고 있다.

전통상례에서 영혼은 둘로 분화하여 하나는 저승으로 가서 안착을 시도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당에 머물면서 집안의 대소사에 끊임없이 관여하는 수호신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 이는 무속적인 저승관과 유교제례의 엄격한 과정 속에 내재된 이중적 영혼관으로 보인다. 또한 엄숙하고 복잡한 상례절차는 곧바로 도(道)의 실현이었으며 인격의 완성을 추구함이었다.

사자의 유체를 안치하는 관(棺)의 바닥에는 칠성판이 있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귀소의 의미와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칠성신앙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 핵심주제어 : 상례, 전통신앙, 죽음, 칠성판, 칠성신앙

I. 서 언

전통이란 오랜 기간을 두고 축적된 문화를 전승시키고 통일하여 온 민족문화의 흐름이다. 산만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원리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승되는 것이 전통일 것이다. 또한 전통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늘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의 표준형식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전통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오랜 역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상례의 경우 전통의 구심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장철수 교수¹⁾는 의례의 시대구분을 첫째로 고대(고유의례시대: 상고~삼국중엽), 두 번째로 중세(의례혼합시대-고유·불교·유교의례의 혼합시대: 삼국중엽~고려말)까지 잡았고, 세 번째로 근세(유교의례시대: 조선초~조선말)를, 네 번째로 현대(의례혼합시대-불교·유교·기독교·기타 의례의 혼합시대: 조선말~현재)²⁾까지로 설정한 바 있다.

전통상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이와 같은 시대적 구분을 통한 변화양상을 간파하고 가장 오랫동안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온 사상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을 논하고자 할 때에는 본질적으로 유교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모습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동시대일지라도 지방에 따른 풍습의 차이는 대단히 광범하므로 여기에서는 단지 유교적 상례 중 핵심적인 절차 속에 내재된 죽음관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장철수, 「중국의례가 한국의례생활에 미친 영향」,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집문당, 1995), 99쪽.

2)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종교사에서도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희수, 「토착화 과정에서 본 한국불교」 (서울: 불서보급사, 1971), 27쪽.

금장태 교수는 유교사상사를 구분함에 있어 1.상고~통일신라시대 2.고려시대 3.조선초 태조~중종 4.조선중기 명종~광해군 5.조선후기 인조~철종 6.최근세 고종이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금장태, 「유교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3-182쪽.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상적 기반을 형성해 온 유교풍토 속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끈질긴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는 무속신앙에서 죽음의 인식을 더듬어 보고, 개화이후 한국에 들어와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으나 강력한 종교적 교세를 보이고 있는 기독교의 죽음관에서 한국적 상관성을 찾아 볼 것이다. 그러한 다음 (1)편에 이어 전통상례를 바탕으로 사자의례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³⁾ 그 속에 내재된 죽음의 의식 내지는 주술적 의미를 궁구하고자 한다.

II. 전통신앙과 기독교의 죽음 인식

1. 전통신앙에서 죽음의 인식

전통신앙은 오랜 옛날부터 민간에 자생하여 전승되어 오는 자연신앙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교조나 교리체계, 교단조직을 갖지 못하며 주술적인 신앙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신앙은 여러 형태⁴⁾가 존재하고 있으나 죽음과 관련된 심오하고 다양한 의식은 무속신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무속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선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가장 오래된 보편적 주술종교현상이다.⁵⁾ 한국 무속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단군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단군의 어원은 '무당'을 의미하는 몽고어 'Tengri'에서 온 것이라 한다.⁶⁾ 이처럼 태고시대부터 무속은 우리 민족신앙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3) 본 논문에서는 李緯, 『增補 四禮便覽』 喪禮篇, (朝鮮: 書業堂藏板, 1900)과 『禮記』, 그리고 朱熹의 『朱子家禮』 등을 참고하였다.

4) 민간신앙은 家神信仰, 洞神信仰, 巫俗信仰, 讀經신앙, 자연물신앙, 동물신앙, 영웅신앙, 풍수신앙, 豫兆占卜, 禁忌, 呪符, 민간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서울:한국사전연구사, 1997), 569-570쪽 참조)

5)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61-64쪽.

6) 최남선, 「단군소고」, 『육당최남선 선집』 권2, 345쪽. 또한 신라본기에 나오는 차차웅 또한 巫를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므로 그를 높이고 존경하여, 마침내는 자충이라 부르게 되었다. 『삼국사기』 “新羅本紀 次次雄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 村山智順, 김희경 역, 『朝鮮의 鬼神』 (서울:동문선, 1993), 113-114쪽.

무속신앙에서는 특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젊은이의 죽음을 애통한 사연과 함께 한이 서린 귀신으로 인정하고 절실하면서도 독특한 곳을 해주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그런데 석남국은 1906~1910년 사이의 통계를 검토하여 조선사람의 평균 수명을 “24세”로 결론지은바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24세 이상 살지 못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선시대의 평균수명이 그토록 낮았던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던지 아니면 첫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⁷⁾ 대체적으로 평균수명이 지극히 낮았던 시대의 조선에는 청소년이 없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아동이 커서 청소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죽어야만 했던 젊은이에게는 애절한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특별한 생각과 의식을 치루어야만 했다. 결혼이전에 죽은 처녀귀신을 손각씨라고 했으며, 총각귀신을 몽달귀신이라고 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방편을 써야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혼(未婚)의 영혼끼리 결혼을 주선함으로써 죽은 자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지금까지도 뿌리깊게 내려오고 있다.⁸⁾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젊은 처녀나 총각의 죽음은 무속에서 가장 밀도 있게 다루어지는 곳의 하나이다. ‘손각씨(孫閣氏)’는 혼기에 찬 처녀가 죽어서 된 원귀로 ‘손말명’이라고도 한다. 생에 대한 미련이 죽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어 귀신이 된다는 것이다. 처녀가 죽게 되면 ‘손각씨’가 될까 두려워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묻거나 가시나무를 관(棺) 주위에 넣고 묻었다. 남자의 옷을 입히는 것은 남성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므로 위안을 주는 것이고, 거꾸로 하거나 엎어 매장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시나무를 넣어 두는 것은 가시에 찔려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뜻으로 한 것이다.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네거리의 길목에 은밀히 묻어 많은 남자가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처녀귀신의 못다푼 정을 달래는 풍습도 있었다. 또는 머리에 체를 덮어 씌워서 묻기도 하는데, 이는 귀신이 체구멍을 헤아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느라고 잊

7) 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노병사』 (서울:한겨레신문사, 2000), 54쪽.

8) 요즈음에도 영혼결혼식을 주선하는 광고가 일간신문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한국가족협회라는 이름으로 영혼의 중매, 맞선, 결혼식, 천도식까지 올려준다는 광고가 있다. (「영혼결혼」, 《중앙일보》, 2002년 5월 14일자, 제17면 광고)

어버려 다시 끊임없이 세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세느라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⁹⁾

총각이 죽어서 된 귀신은 ‘몽달귀신’, ‘삼태귀신’, ‘도령신’이라고 하였다. ‘몽달귀신’은 어떤 여자에게 반해서 상사병에 걸려 죽은 총각과 역시 장가들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총각의 혼령이 원귀가 되어 처녀귀신처럼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른다고 믿고 있다. 총각의 경우 생전에 좋아하던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못 잊어 승천을 못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원한에 악귀로 변해서 그 처녀에게 붙어 괴롭힌다. 이럴 때 처녀 쪽에서는 무당을 통해 한을 풀어주는 방법을 쓰거나 굿을 해주어야만 한다.¹⁰⁾

민간신앙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청소년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한(恨)과 원(冤)이 깊은 것으로 믿어 왔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한을 풀어 주어야 했으며 그 방법으로 굿과 함께 영혼결혼식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옛 문헌¹¹⁾에서도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영혼결혼, 곧 사후결혼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명칭도 실로 다양하다. 제주도에서는 ‘죽은혼서’라고 부르며, 호남 무당들은 ‘저승혼사’라고 하며, 경상도에서는 ‘허제비굿’이라고도 한다. 허제비란 짚으로 만든 인형을 말하는데, 신랑인형에는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인형에는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혼례를 치루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¹²⁾

사후결혼의 실제 사례 하나만 들어 보자. 울산시 울주군 강동면 산하리 화암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9)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874쪽.

10) 위의 책, 525-526쪽.

11)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考』에는 사후결혼을 가상명혼(嫁冥冥婚)이라 하여 중국의 영향으로 성행하였다고 했으며, 이능화(李能化) 역시 제주도의 사후결혼은 원나라의 영향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규경, 『국역 오주연문장전산고』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1). 이능화, 『조선무속고』, 李在崑 역, (서울:동문선, 1991), 296쪽. 三國遺事에도 桃花女와 鼻荊郎의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이는 죽은 남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여자가 연을 맺어 자식을 둔다는 설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12) 노성환, 「사후결혼의 구조연구」, 서울: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16집, 1999, 235-236쪽.

1931년 3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박씨는 1950년 여름 그의 형들과 함께 6.25에 참전하여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그의 나이 19세였다. 그 후 몇 십 년이 지나 1981년부터는 그의 형수의 꿈에 박씨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의 형수가 갑자기 병이 나 신들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마구 돌아다니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시어머니(박씨의 모친)가 점을 보니까 막내아들의 영혼이 지금 머느리를 아프게 하고 있으니, 결혼시켜주면 나아질거라 하여 결혼을 시키기로 했다. 상대는 점장이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았다. 여자는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사는 손씨의 5남4녀 중 둘째였고, 20세의 나이로 죽은 아가씨였다. 결혼식은 1982년 8월 20일 신랑집에서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치루어졌다. 신부집에서 신부의 어머니만 참석하였다.¹³⁾

이처럼 결혼 전에 사망한 두 미혼남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영혼결혼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런 다음에 부계친족 가운데 양자를 받아들여 그 양자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며, 그들의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후결혼이다.¹⁴⁾

이와 같이 전통신앙에서는 성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청년영혼들을 위로하는 영혼결혼을 통하여 영계의 평화를 도모하였다. 죽은 자는 비록 영혼이지만 살아 있을 때 이루지 못했던 배우자를 만나 영혼의 교감을 통하여 해원(解冤)을 하고 또한 양자로부터 제사를 받아 먹음으로써 조상의 위치로 격상되기도 하였다.

전통신앙에서 청소년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를 해꼬지 하는 고약한 귀신이었다. 결국 살아있는 가족들은 죽은 자의 뜻을 수용하여 이제는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길 닦음을 해주는 살풀이를 통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제도종교에서는 신앙을 통해서 종교적 구원에 의하여 내세로 가게 되지만 무속에서는 현세에서 일정한 신앙을 통하지 않고서도 내세로 가게된다. 제도종교에서는 살아 생전의 공과에 따라 극락과 천당으로 가지만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영혼이 내세인 저승으로 간다. 이는 무속의 세계관이 지극히 자연적이며 평등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¹⁵⁾

어찌되었건 무속에서의 죽음이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행스러운 일

13) 앞의 책, 231쪽.

14) 위의 책, 238쪽.

15) 주강현, 「한국무속의 생사관」,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서울:민속원, 2001), 84쪽.

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¹⁶⁾는 민간의 속담과 일치한다. 죽은 이는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신으로 격상된다. 신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고통을 해주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당의 사회적 기능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양자가 화해를 이끌어 내어 결국은 죽은 자가 이승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저승으로 훌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다. 죽은 이는 어쩔 수 없이 신이 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신이다. 무속에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계속하여 영혼의 교류와 상호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2. 기독교에서 죽음의 인식

무릇 모든 종교에서 지향하는 정점(頂點)이 죽음은 아니다. 유교는 인(仁)의 실현¹⁷⁾이라 할 수 있고, 불교는 무명(無明)의 멸진(滅盡)을 통한 해탈로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이며,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의미를 구명(究明)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이상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서에서는 과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시편 89, 48)으로 인정하였으며 또는 최초의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죄의 대가(창세 3, 19)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는 불가피한 관문으로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이다.

구약에서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닥치게 되었는가를 묻고 나름대로 답변을 시도하고 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것으로 보아 첫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죽지 않으려거든

16) 이와 유사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말뚝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거꾸로 매달아도 사는 세상이 좋다’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등이 있다.

17) 『大學』 「大學章句序」 ‘仁註’참조; 『孟子』 「告子上」 “仁人心也”; 『康熙字典』 仁字解義 “仁者義之本也順之體也得之者尊” “君子體仁足以長人”; 『論語』 「衛靈公」 “有殺身而成仁”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창세 3, 3) 이러한 금령(禁令)을 어김으로써 죽음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낙원의 이야기는 선(善)하신 하느님은 결코 고통이요 악인 죽음을 만들지 않았다(지혜 1, 13)는 기본사상을 일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불행은 인간의 잘못과 실수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느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게 만든’(창세 1, 31) 인간은 악마의 시기(猜忌)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초래되었으며(창세 3, 5; 지혜 2.24), 인간 중에서도 유혹에 약한 여성이 먼저 죄를 범하게 되었다(창세 3, 1.12; 전도 25, 24)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죄에 대한 창세기의 낙원설화는 인간의 실존 여건, 즉 삶과 죽음, 노동, 출산의 고통 등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설명하는 원인론적 설화이다.¹⁸⁾ 여기에서는 죄의 벌로 받는 죽음과 피조물(被造物)의 죽음을 구별하고 있다. 창세 2, 17에서는 열매를 손대면 죽을 것이라는 위협이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창세 3, 16이하 참조) 따라서 이러한 인생 최후에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인간의 피조성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창세 3, 19) 이 표현은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 2, 7과 관련된 것이지 죽음의 선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낙원설화의 작가는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의 창조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¹⁹⁾

인간은 현실적으로 죄는 고통을 낳고,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자주 체험한다. 결과로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은 원인으로서는 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리 없이 죄를 고통스러운 죽음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²⁰⁾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죽음이 죄의 벌로 이해되기에, 속죄(贖罪)로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시다. 이미 죽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살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고 땅 속에 누워

18) 성서와 함께 편집부 엮음, 『보시니 참 좋았다』 (서울:성서와 함께, 1988), 21쪽.

19) 한스 발터 볼프, 문희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 (왜관:분도출판사, 1976), 204-205쪽.

20) 조규만, 「그리스도교의 죽음의 이해」,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21호, 1997, 63-64쪽.

있는 자들이 깨어나 기뻐 될 것입니다. 땅을 반짝이는 이슬에 흠뻑 젖어, 죽은 넋들을 다시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이사 26, 19). 그래서 죄인과 달리, 의로운 사람은 죽었지만 명성이나 추모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믿음이나 또는 후손 안에서 계속 살아 있다는 믿음(지혜 4, 1)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²¹⁾

이는 군자는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지 못함을 가장 부끄러운 일²²⁾로 여기는 유교적 선비정신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의인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으며”(지혜 4, 7)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재앙으로 생각될 것이며,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의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지혜 3, 2-3)는 성서의 구절들은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仁을 해치지 않으며,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고자”²³⁾ 하였던 유교정신과 일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러한 유학자들의 정신은 기나긴 세월의 벽을 뚫고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데서 죽음의 고통을 가히 낙(樂)으로 돌렸던 흔적이 기독교와 유교에서 유사하게 보여짐은 흥미로운 일이다.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계시는 예수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사악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라고 하셨다”는 마르 12, 26-27은 죽음에 대한 예수의 견해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다.

예수는 부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칭호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마르 12, 27). 이러한 확신은 하느님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충실한 자들과의 사람의 친교를 계속 유지하신다는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죽음을 넘어선 친교는 마태 8, 11에 잘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

21) 앞의 글, 64쪽.

22) 『論語』 「衛靈公」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23) 위의 책, “志士仁人 無求生而害人 有殺身而成仁”

게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이처럼 예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예수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신 하느님과 친교, 즉 구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²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교 태동단계에서는 죽음이나 삶이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과 정신적인 죽음으로 구분된다. 정신적 죽음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악 속에서 사람이나 하느님 은총의 상실을 뜻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 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자신들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의 중심이 변하였다. 점차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더욱 중요한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되었다.²⁵⁾

바울로와 바울로계의 문헌에 의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불가피한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달리 주님의 재림을 체험하기도 전에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희망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냐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바울로는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어떻게 상관하는지 설명해야만 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1 테살 4, 13-18)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다. 재림을 희망한 사람들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지연되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후기 작품에서는 재림 때 이루어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다 근원적인 희망이요 중심 신앙으로 삼고 있다. 즉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과 신앙의 중심이 ‘주님의 재림’에서 ‘죽은 자의 부활’로 그 초점이 옮겨졌다. 말하자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죽음 저 건너편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바울로는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를 예수의 부활에 두고 있다. 예수의 부활로

24) H.포그리물러, 심상태 역, 『죽음-오늘의 그리스도교적 죽음이해』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82), 64쪽.

25) 조규만, 앞의 글, 80쪽.

26) Franz-Josef Nocke, *Escatologia, Brescia*, 1985(2), p.64. 조규만, 위의 글, 81-82쪽에서 재인용.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으로서 우리의 부활은 단지 영혼의 불멸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근거하며,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함축하고 있다. 바울로에 의하면 육체란 인간에게 있어 본질적인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죽은 뒤에라도 육체 없는 인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참조: 1고린 15, 35; 2고린 5, 1)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육체란 그리스 사람처럼 영혼의 무덤도 아니며, 영지주의자들처럼 악의 원리도 아니다. 육체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창조물이요,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전부를 지시한다. 따라서 바울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하느님을 섬겨야 하고, 육체를 가지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영혼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닥치는 사건이며,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은 단지 영혼의 불멸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부활에 있다는 점을 밝혀 준다.²⁷⁾

죽음의 불확실성과 신비성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불가해한 결정처분에 맡기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길 때만이 죽음을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영성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죽음은 긍정적이고 자아성취, 자아확인, 자기의 인격실현의 계기가 된다. 그런데 똑 같은 죽음, 즉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끝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인간을 맹타하는 파괴요 어두운 운명이다. 죽음의 이러한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죽음을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데 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승리한 것을 주장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로는 모든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서로 나눈다는 것을 말한다. 요한은 죽음을 우리의 생활전체로 확장시켜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요한 1서 3, 4)

이와 같이 성서는 죽음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삶을 수락하지 않으면 죽음도 수락되지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로 늘 죽으며 우리자신들도 실망, 실패, 슬픔, 이별, 좌절감, 분노, 공포, 우울증 등 “작은 죽음”을 당하고 있다. 요한 웨슬레는 아침에 자

27) 앞의 글, 84쪽.

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축을 둘러싸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회전을 하고 있다. 성서는 죽음을 현실 삶 속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의 육체적 죽음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죽음으로 규정한다.

요한의 말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음 속에 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온갖 “작은 죽음”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마지막의 죽음에서도 승리한다. 기독교 장례식은 슬픔과 실망 중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에서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로 거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요한 1서 4, 18)는 말씀을 애도하는 기간에 증가하는 기회가 된다.²⁸⁾

인간이 죽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죽음의 공포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태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은 오직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된다. 신앙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사후에도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 14, 3)는 말씀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것으로 죽음은 극복된다.

Ⅲ. 사자의례(死者儀禮) 속에서 죽음의 인식

1. 준비의례 : 상제(喪制)와 호상(護喪)

우리의 전통신앙에서는 죽은 자만이 거주하는 저승을 설정하여 놓았다. 그래

28) 박원기, 『임종과 간호-호스피스 케어-』(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990), 60-61쪽.

서 죽은 자는 모두 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승에 살면서 한을 남긴 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여전히 인간세상을 떠돌게 되어 있다. 이승에 머무는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므로 결국 무당의 굿을 통하여 저승으로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일단 저승에 들어가면 살아서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가 되었다. 반상(班常)이 엄격하던 신분사회에서 사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은 혁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깊은 신앙에서 발현되는 성령체험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 속에서 사소한 고통은 물론 죽음까지도 극복되어 진다. 연약한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나 늘 하느님의 가호와 함께 한다는 믿음은 그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반면 노장사상에서는 불로장생을 성취하고자 이승에서의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데 주력하였다. 자연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신선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전통상례에서 죽음이 확인되는 발상의 시점부터 그 속에 내재된 죽음의 양태를 살펴보자. 발상(發喪)은 환자가 임종한 후, 자손들이 회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상제(喪制)의 모습으로 초상이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과정이다. 초상을 당하면 상주²⁹⁾는 여러 가지 준비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엄숙하면서도 복잡한 의례의 준비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례에 밝은 사람으로 호상(護喪)을 정하여 모든 상사(喪事)를 주관하게 한다. 또 이를 돕는 상례(相禮: 예를 돕는 사람), 축관(祝官·贊祝: 상례에 밝은 사람), 사서(司書: 문서관리), 사화(司貨: 경비출납), 사빈(司賓: 손님접대)을 뽑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다.

이제 부모의 상을 당하여 지극히 애통한 마음이 극에 달하여 “가없고 슬픈 마음과 아프고 병든 의식으로 신(腎)이 상하고 간(肝)이 마르며 폐(肺)를 태운다. 물과 장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밥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이

29) 상주는 당연히 장남이 되는데 옛 사람들은 자신의 장남을 남에게 소개할 때 “이 놈이 내 만상주요”라고 하였다. 이는 장남이 이렇게 건사하니 나는 언제 죽더라도 든든하여 가업과 가통을 잇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긍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최래옥, 「민속 신앙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17집, 1999, 202쪽.

옷과 마을에서 미음과 죽을 끓여 마시게 하니 이를 마지못해 먹는다”³⁰⁾ 일년복과 9개월복을 입는 사람은 세 끼니³¹⁾를 먹지 않으며, 5개월복과 3개월복을 입는 사람은 두 끼니를 먹지 않는다.

상복(喪服)은 “열두 폭으로 지어 열두 달을 상징하였고, 소매는 둥글게 하여 둥굴쇠에 응하고, 굽은 것은 자처럼 하여 모난 것에 대응하였다. 부승(負繩)은 복사빠에 미치게 하여 곧은 것에 응하고, 아랫단의 바느질은 권형(權衡)과 같이 해서 평평한 것에 대응하였다”³²⁾ 이와 같이 상례의 모든 과정은 지극한 효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효는 인위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태도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효자의 정성으로 심상(心喪)을 치루고자 하는 것이 전통상례의 근간(根幹)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검의례 : 습염(襲殮)과 입관(入棺)

사자의 염습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치 살아 있는 듯이 생전에 사용하던 상에 포와 식혜·술·과일 등을 담아 집사가 올리는 것을 전(奠)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기 이전까지 올리는 음식으로 시사전(始死奠)에서 견전(遣奠)까지 차례야 한다. 이 ‘전’은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뒤에는 제(祭)로 바뀌게 되는데, 장사를 지낸 당일에는 초우제(初虞祭)를 올리고, 이후 재우제(再虞祭)·삼우제(三虞祭) 등으로 이어진다.³³⁾

사자의 몸을 신분에 따라 향탕수 혹은 쌀뜨물로 씻긴 다음 옷을 갈아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과정이 바로 습염이다. 염은 ‘거둔다’ ‘감춘다’라는 뜻으로 소렴(小殮)은 임시로 시신을 묶는 것이며, 대렴(大斂)은 시신을 최종적으로 묶어서

30) 『禮記』 「問喪」 “惻怛之心 痛疾之意 傷腎乾肝焦肺 水漿不入口 三日不舉火 故鄰里 爲之糜粥以飲食之”

31) 여기에서도 예의 그 3이란 숫자가 등장한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3이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1)에서 천착한 바 있다.

32) 『禮記』 「深衣」 “制十有二幅以應十有二月 袂圓以應規 曲袷如矩以應方 負繩及踝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

33) 문옥표 등, 『조선시대 관혼상제(Ⅱ) 상례편(1)』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4쪽.

입관하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습(襲)은 유체(遺體)에 옷을 입히는 과정이며 습을 거둔 당일에 이루어지고, 소렴은 다음 날에, 대렴은 그 다음 날에 행하여진다. 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지고 깨끗한 곳에 가로 한자, 세로 두자, 깊이 석자의 구덩이를 판다. 파낸 흙은 남쪽으로 쌓아 둔다.³⁴⁾

습의(襲衣)는 대청 앞 동쪽 벽 아래에 있는 탁자에 늘어놓는데 깃을 서쪽으로 하고 남쪽을 상(上)으로 하여, 폭건(幅巾)·충이(充耳귀마개)·명목(幘目눈가리개)·악수(握手손싸개)·심의·큰띠·한삼(汗衫적삼)·과두(裹肚배싸개)·포오(袍襖남자의 경우는 중치막, 여자의 경우는 저고리)·바지·늑백(勒帛:행전(行纏))·말(襪:버선)·신을 놓는다.³⁵⁾

목욕을 할 때 사용하였던 물과 수건, 빗 등은 먼저 파 놓았던 구덩이에 넣고 묻는다. 옷을 입힐 때는 왼쪽으로 옷을 여미고 매듭을 매지 아니한다고 하였다.³⁶⁾ 이는 살아있는 사람은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미므로 생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사례편람』에는 우임(右衽)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죽은 이는 좌임(左衽)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습의는 살갗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이 오른쪽으로 여미는 것을 권장한 듯 하다.

다음은 반함(飯含)으로 이는 시신의 입에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순가락으로 떠 넣는 것이다. 이는 죽은 자가 저승까지 갈 때 먹어야 할 식량으로 생각하였다. 쌀을 떠 넣을 때는 입안의 오른쪽 왼쪽 가운데 3번을 넣는데 처음에는 “백석이오” 두 번째는 “천석이오” 하고 세 번째는 “만석이오”라고 큰소리로 말한다. 또한 이때 입안에 조가비나 엽전, 玉을 함께 넣기도 하는데 그 숫자는 물론 3개이다. 엽전을 넣을 때는 역시 쌀과 같이 백냥, 천냥, 만냥이라고 외친다.³⁷⁾

시신의 조그만 입안에 쌀 세 순가락과 겨우 동전 세 잎을 넣으면서 하는 말

34) 『四禮便覽』 卷之3喪8, “掘坎, 掘坎于屏處潔地, (既夕記)廣尺, 輪二尺, 深三尺, 南其壤”

35) 문옥표, 앞의 책, 20쪽.

36) 『儀禮』 「士喪禮」 “遷尸於襲上而衣之 凡衣死者 左衽不紐”

37) 시신의 입안에 쌀이나 밥을 물리는 의미는 “차마 그 입이 비어있게 하지 못하여 이 맛 있고 깨끗한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禮記』 「檀弓」 “或問飯含之義 曰 檀弓云 不忍其口之虛 用此美潔之物而實之”)

은 사실 너무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시대의 농경사회에서 만석꾼이라고 하면 엄청난 대부호에 속하였으며 만냥이라는 돈은 사람들이 쉽게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을 것이다. 저승길의 노자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이러한 상징성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은 저승에서는 현세에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행위로 보여진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은 돈을 갖고자하는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큰돈과 많은 양의 쌀을 확보하였으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흡족하였겠는가. 당시에 쌀은 가장 경제성이 높은 유통수단이었음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3. 신앙의례: 칠성판과 칠성신앙

칠성판(七星板)은 시신의 크기와 같은 송판으로 관(棺)의 바닥에 들어가는 데 길이와 넓이는 관의 안치수를 따르고, 두께는 5푼이고, 널판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7개의 구멍을 뚫는다.³⁸⁾ 시신과 칠성판을 비단으로 감는데 이를 ‘칠성칠포’라고 하며 길이는 일곱자이다. 칠포를 감는 방법은 두 가닥으로 자른 후 끝에 한 자 정도는 붙여두고 발부터 싸맨다. 칠포의 끝은 매듭을 짓지 않고 바늘로 꿰매어 붙여 둔다. 칠성칠포를 감은 후 입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 짚어지고 간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관의 바닥에 들어가는 칠성판은 우리 민족이 존재하면서부터 믿어온 뿌리깊은 칠성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칠성판에는 이제 그 영혼이 본래 온 고향별인 북두칠성(Big Dipper)으로 돌아가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칠성신앙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독특한 신앙이다. 칠성신은 우리의 생활 속에 빈틈없이 파고들어 집안의 곳곳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부엌에도 우물가에도 장독대에도 모두 칠성신이 있어 가족의 생명과 안위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칠성신이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한다고 믿어 왔다.³⁹⁾ 여자들은 집안에

38) 『四禮便覽』 卷之3喪7, “七星板, 用松板一片, 長廣準棺內, 厚五分, 板面穿七孔, 如北斗狀”

39) 巫祖神인 바리공주 이야기에 의하면 버려진 일곱 번째의 공주에 의하여 부모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영계로 들어가 아들 칠형제를 낳고 생명을 살리는 약수를 얻어 온다. 새생명의 기운은 7수와 관련이 있다.

우환이 있으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지극정성으로 빌었다. 집안의 기도 장소로 반드시 장독대가 등장하는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장독대는 낮에는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며 밤에는 달빛이 밝게 비쳐주는 곳이다. 그리고 집안의 한쪽으로 외부의 시선을 비교적 차단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칠성신에 기도를 올리는 까닭은 바로 정한수에 칠성신이 비추어 지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기도의 효험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우물가에서 비는 이유는 우물에 바로 칠성신⁴⁰⁾이 비취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주술성이 실린 북두칠성을 괴강(魁岡)이라 하는데 괴(魁)자는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鬼)자와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두(斗)자가 결합한 문자이다. 즉 칠성의 신명에 잡혔다는 뜻으로 괴강을 국강(國岡)으로 고쳐 부른 이가 바로 광개토대왕이다.⁴¹⁾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괴강의 강(岡)은 사정(四政)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사정은 자오묘유(子午卯酉)로 북남동서의 사방이며 천지를 바르게 지키고 세운다는 의미이다. 즉 북두칠성의 천추·천선·천기·천권⁴²⁾을 말하는 것으로 이 네별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공간을 선기옥형(璇璣玉衡)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른 정사를 뜻한다. 또한 선기옥형이 자시(子時)부터 땅을 향하게 되는데 이때 땅 위의 모든 물은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게 된다. 물의 맛은 북두칠성의 정기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밤새 별과 달의 빛을 받고 새벽이슬에 젖은 물을 으뜸으로 치는 이유가 바로 선기옥형의 기를 받은 물을 말하는 것이다.⁴³⁾

이와 같이 북두칠성은 인간에게 생명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의 자리에 지금까지 누리던 생명을 귀의시키는 뜻으로 관의 바닥에 칠성판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일곱매듭으로 묶어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하고 수명의 신을 관장하는 칠성신께 돌아감을 확인하였던 것이다.⁴⁴⁾

40)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표현은 칠성님, 칠성신, 七星如來, 七元星君 등이 있다.

41)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북두칠성의 자손 즉 천손민족으로 믿었다.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고인들의 상단에 이미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었으며 고구려 왕릉, 광개토대왕비 상단 등에는 북두칠성과 함께 우물정(井)자도 함께 발견되는데 이는 하늘의 북두칠성이 지상의 우물에 존재함을 상징한다.

42) 국자의 머리부터 차례로 천추(天樞)·천선(天璇)·천기(天璣)·천권(天權)·옥형(玉衡)·개양(開陽)·요광(搖光)이라고 한다.

43) 조성제, <http://www.shaman.co.kr/newspaper/>참조.

우리 민족이 가졌던 칠성신앙과 함께 7이라는 숫자는 여러 종교에서 놀라울 정도로 자주 등장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약성서』에는 노아의 아버지이자 장수한 것으로 유명한 므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으로 777년 동안 살았다. 또한 라멕을 헤치는 사람은 77배로 보복을 당한다고 하였다.(창세기4:24)

후기 유대교의 『유대인의 마법과 주술』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말라리아의 치료법이 흥미롭다. “야자수 일곱그루의 잎사귀 일곱 잎, 대들보 일곱 개에서 나온 조각 일곱 개, 다리 일곱 개에서 빼낸 못 일곱 개, 난로 일곱 개에서 담은 재 일곱 움큼(중략)... 등을 늪은 개의 수염 일곱가닥과 함께 흰색 매듭 줄로 셔츠 목구멍에 묶으면 낫는다”고 하였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마지막 말은 일곱 단어로 되어 있으며 요한 계시록에 의하면 일곱 개의 봉인이 열리면 일곱 개의 트럼펫이 울려 최후의 심판일을 알린다고 하였다.

반면에 피타고라스는 7이 위험을 상징하는 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달 중 7로 나누어지는 날은 모두 위험한 날이었다. 이슬람에서도 7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코란을 보면 신은 하늘과 땅을 일곱층으로 창조했다고 나온다.⁴⁵⁾

신기하게도 7은 지역과 종파를 초월하여 대단히 중요한 수로 등장한다. 서구 문화의 원천인 성서에도 7이나 7의 배수에 관한 표현이 수천 번 등장한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는 일곱 마리의 사자가 나오며, 삼손이 잘라버린 머리카락도 일곱가닥이었다. 여호수아는 일곱명의 나팔수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위를 일곱바퀴 돌도록 하였다. 신드바드는 항해에 일곱차례 나서며, 순례자들은 메카의 카바신전 주위를 일곱바퀴 돈다. 깨끗하다고 간주된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일곱 마리씩 올랐으며, 깨끗하지 못하다고 간주된 동물들은 두 마리씩 올랐다.⁴⁶⁾

이와 같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7이 갖고 있는 주술성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

44)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문학아카데미, 1994), 176쪽.

45) Clifford A. Pickover, *The Loom of God*, 이상원 역, 『신의 베틀』 (서울:경문사, 1997), 116-119쪽.

46) Michael S. Schneider, *A Begineer's Guide to Constructing the Universe*, 이충호 역,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서울:경문사, 2002), 222쪽.

각된다. 지금도 사람들은 3혹은 7이 행운을 상징하는 길수(吉數)⁴⁷⁾로 믿고 있다.

칠성신앙은 한국의 불교에도 습합되어 산신각과 함께 칠성각은 자식을 기원하는 기자신앙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실제로 자식을 빌면 영험이 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 전국의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⁴⁸⁾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가나 그 기(氣)는 하늘로 올라가 소명(昭明)이 되기⁴⁹⁾ 위해서는 불가피 칠성님께 의존해야만 했던 것이다.

IV. 결 어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의 욕구는 오늘날 과학과 예술, 종교와 철학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지향하는 최상승의 시점에는 어김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지속되는 삶의 정지점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바로 종교를 낳았고,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죽음을 수용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의 회구는 이집트인들에 의하여 미이라를 탄생시켰고 무속에서는 저승을 설정하였으며 고대그리스나 힌두교, 자이나교 등에서는 윤회전생을 교설하였다. 기독교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통하여 영생을 기원하고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영생은 어쩌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시간일 것이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세계는 어쩌면 불변의 세계이며 완벽한 「무(無)」의 공간일 것이다. 이것은 인간 최후, 최상의 도착점이다. 영혼의 구원이란 종교적 명제는 사후세계의 적절한 설정을 통하여 설득력을 갖게 된다.

전통상례에서 보는 죽음의 세계는 머나먼 저승으로 가기 위하여 그 길을 인

47) 이것은 단군신화에서 곰이 굴 속에 들어가 마늘과 쑥으로 견디던 기간이 3·7일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48) 秋葉 隆, 『朝鮮民俗誌』, 심우성 역 (서울:동문선, 1993), 29쪽.

49) 『禮記』 「祭義」 “衆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骨肉葬于下 陰爲野土 其氣發揚于上爲昭明 焄蒿悽愴 此百物之精也 神之著也”

도하는 저승사자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엽전을 주면서 편안한 저승길을 부탁하였다. 동시에 그 영혼이 사당에 항상 머물면서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받기도 하고 길흉을 좌우하는 기복의 신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이중적 존재로 남아 있다. 이는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僞說)』에 “사람이 죽으면 양기(魂)는 떠서 흩어지며, 흩어진 양기는 둘로 분화하여, 하나는 천계로 승천하고 하나는 지계로 강하하여 승천한 것은 양(陽)으로 신(神)이 되고, 강하한 것은 음(陰)으로 귀(鬼)가 된다”⁵⁰⁾는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상례에서 보여주는 모든 의식들은 지극한 효의 실천에 다름아니며, 엄격한 의례를 봉행함으로써 성인의 도를 갖추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⁵¹⁾ 동시에 관의 바닥에 칠성판을 깔아 생명의 귀의를 통하여 칠성신의 신묘한 기운으로 다시금 생명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절차 속에는 한국인이 꿈꾸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이 깃들여 있으며 의례의 곳곳에는 조상숭배의 관념이 배어 있다.

이 글에서는 무속이 지닌 죽음의 인식과 기독교적인 죽음관에서 한국적 죽음관의 유사성을 논구하였고, 특히 전통상례 중 입관의 절차에 따르는 칠성판과 관련하여 주술적 신앙의 의미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보았다. 대표적인 몇 개의 절차만을 논한 관계로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음의 연구에서 다시금 천착할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康熙字典』
『大學』
『論語』
『孟子』
『聖書』
『荀子』
『禮記』

50) 村山智順, 앞의 책, 86-91쪽 참조.

51) 「荀子」 「禮論」 “事生 飾始也 送死 飾終也 終始具而孝子之事畢 聖人之道備矣”

「儀禮」

- 강성경, 『청소년을 위한 환경윤리와 원불교 은사상』,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0.
- 금장태, 『유교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 노성환(1999), 「사후결혼의 구조연구」, 서울: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16집.
- 문옥표 등, 『조선시대 관혼상제(Ⅱ) 상례편(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1994.
- 박원기, 『임종과 간호-호스피스 케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990.
- 성서와 함께 편집부 엮음, 『보시니 참 좋았다』, 서울: 성서와 함께, 1988.
- 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노병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0.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8.
- 이규경, 『국역 오주연문장전산고』,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1.
- 이능화, 李在崑 역, 『조선무속고』, 서울: 동문선, 1991.
- 李 緯, 『增補 四禮便覽』 喪禮篇, 朝鮮: 書業堂藏板, 1900.
- 이희수, 『토착화 과정에서 본 한국불교』, 서울: 불서보급사, 1971.
- 장철수, 「중국의례가 한국의례생활에 미친 영향」,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 집문당, 1995.
- 조규만(1997), 「그리스도교의 죽음의 이해」, 서울:가톨릭대학교출판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21호.
- 주강현, 「한국무속의 생사관」,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서울: 민속원, 2001.
- 朱 熹, 『朱子家禮』
- 최남선, 「단군소고」, 『육당최남선 선집』 권2.
- 최래옥(1999), 「민속 신앙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제17집.
- 村山智順, 김희경 역, 『朝鮮의 鬼神』, 서울: 동문선, 1993.
- 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民俗誌』, 서울: 동문선, 1993.
-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7.
- 한스 발터 볼프, 문희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 왜관: 분도출판사, 1976.
- Clifford A. Pickover, *The Loom of God*, 이상원 역, 『신의 베틀』, 서울: 경문사, 1997.
- H.포그리틀러, 심상태 역, 『죽음-오늘의 그리스도교적 죽음이해』,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2.
- Michael S. Schneider, *A Begineer's Guide to Constructing the Universe*, 이충호 역,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원형』, 서울: 경문사, 2002.
- 《중앙일보》, 2002년 5월 14일자.
- <http://www.shaman.co.kr/newspaper/>

A Study on Traditional Funeral Ceremonies and View of Death in Korea(2)

Kang, Seong-Gyung

(The librarian of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belief, exorcism is thought to guide a dead soul to the heavenly destination, a manifestation of humanism for living people. As long as a dead soul remains in this world, it is believed to do evil to living persons. This is why exorcism is practiced to send the dead soul to the underworld as early as possible after satisfying its grudge.

The Old Testament of Bible testifies that a righteous man can find a refuge even after the untimely death, which, in principle, complies with the Confucian spirit of classical scholar who used to seek after accomplishing perfect virtue even at the cost of his life.

In the traditional funeral services, it is believed that a soul is divided into two; the one is expected to go to the underworld to take rest, while the other one remains in the household shrine as a guardian god engaging in all sorts of family affairs incessantly. The solemn and intricate process of funeral ceremonies is regarded as realizing the truth and pursuing the completion of personality.

The mortuary plank laid on the bottom of a coffin is thought to symbolize the return of the dead to the original place and, at the same time, the hope to come back with a new life.

Key Words : funeral ceremony, traditional belief, death, mortuary plank, belief in the Great Dipper.